

휴바이론, 나노스톤 해외판매 대행

보안카메라 생산기업 휴바이론은 최대 주주인 범일인더스트리가 개발한 건축자재 <나노스톤>의 해외판매를 맡기로 했다고 6월21일 발표했다.



휴바이론은 “미국법인 등 세계 60개국에서 확보한 200여개 거래선을 통해 나노스톤을 판매할 계획”이라며 “기존 영상보안 분야와 별도로 나노스톤 관련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나노스톤은 천연 화강석의 경도와 성질을 그대로 구현하면서도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건축자재로 가격이 자연산보다 30%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11/06/21>